

## 니-최 復興의 現代的 意義 (三)

安浩相

### 一, 文化觀

哲學者요 藝術家요 兼하여 預言者인 니-최는 우리 人生發展에 重要한 部門과 領域에서 各各 獨特性을 表現하였스니, 먼저 그가 文化의 形成과 意義를 根本적으로 究明해 노흔 것을 □□ 할 수 잇는 것은 그의 作 「悲劇의 誕生」과 「未熟한 觀察」 등에서 그의 文化觀을 엿볼 수 잇슴을 말하고 십다.

文化는 人間의 集合活動으로 形成하는 것이요 禽獸의 集合으로 될 것이 아니다. 人間이 動物과 다른 點이 무엇인가? 「神은 道德만을 가졌고 禽獸는 愉快만을 가졌스나 오직 人間만이 藝術을 所有하였다. 人間을 神으로부터 區別하고 禽獸와 다른 點을 區別할 수 잇는 힘은 오직 人間은 藝術을 所有한 까닭에 所在한다.」고 말한 칸트의 思想이 니-최에게도 反映되었슴을 아래와 가튼 니최의 說에서 發見할 수 잇다. 「文化는 一民族의 諸生活 表現의 統一이다.」 다시 말하면 文化한 民族의 諸生活 表現은 藝術的 樣式의 統一이다. 此說에 依하면 生活의 表現이 許多하나 藝術的 樣式의 統一이 업시는 文化를 形成할 수 업슬 것이며, 비록 生活의 諸現象이 多樣多種하지만 비로소 藝術形式의 統一을 造成함으로서야 그것이 文化發展上 必要한 要求로써 適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藝術的 스타-르의 統一이 업시는 如何한 文化든지 文化로서 成立할 수 업슴으로 文化成立의 基礎와 文化高下의 尺度는 藝術的 □□ 內에서만 오직 左右될 수 잇슬 것이다.

十九世紀末 獨逸 社會는 諸方面에 잇서서 複雜多端하였거니와, 特히 武力的 勝利와 大獨逸의 建立으로 因하여 獨逸歷史는 한 애포해를 짓게 되는 때에 니-최는 獨逸의 文化를 疑心하게 되었스니, 文化는 藝術 樣式의 統一으로써 發展하지 안할 수 업는 以上 獨逸의 文化는 如斯한 統一을 主要하게 包括하고 잇는가함에 反問을 가지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는 스사로 獨逸民族을 如斯한 統一을 根本적으로 所持하지 못하였다 自答한 後, 어떤 獨特한 스틸(Stil)의 統一이 眼光에 비치지 안을뿐더러 모든 스틸을 다만 混雜으로 存在

할 뿐이요, 科學과 藝術 甚至於 衣服과 生活方式까지라도 統一을 □하여 各時代와 各 民族으로부터 依存된 生活樣式이라고 判定하게 되었든 것이다.

過去 獨逸이 가졌든 文化나 當時의 獨逸文化가 兩者 共이 니-최의 心靈에 滿足을 줄 수 업스니 過去文化는 歷史가 거러야 할 過程의 必然한 產物에 큰 重要性을 가지지 못하였스니, 此를 現在에 繼續하거나 延長할 것이 아니라 終結짓고 新文化를 樹立하려 努力한 것이 當時人의 主要한 本課題가 되지 안흔면 안될 것이다 力說하였다. 여기서 니-최는 다시 한번 「어떠한 文化가 必然코 存在해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 말하기를 眞實한 文化는 오직 「藝術的 樣式 統一로」 依하여 成立될 것이라 하고, 藝術的 樣式 統一은 如何한 人間에 依하여 能히 產出할 수 잇슬가함에 이는 오직 「天才」만이 可能할 수 잇습을 말하였다.

天才가 아니고는 스틸로 안인한 잇트가 產出할 수 업슬 것이요, 兼하여 偉大한 文化의 씩을 차를 수 업슬 것이니, 未來의 참된 文化는 過去의 天才로부터 樹立된 것이며, 過去의 諸文化는 未來의 天才를 產出하려는 意圖요 活動이 아니면 아니 된다.